

비상경보

카일 라이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10분경, 하와이 주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휴대폰을 통해 “하와이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이 있사오니 즉시 대피하세요.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라는 비상경보 알림을 받았습니다. 38분 후에 “미사일 위협이나 위협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못된 경보였습니다” 라는 비상경보를 취소하는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사실은, 하와이 비상관리 기관이 통상 하루 세번씩 하는 근무 교대 훈련을 하는 것였지만, 한 근무자가 실수로 경보를 시험하는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경보를 발령하는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보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지만, 패닉상태에 빠져든 하와이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진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코알루 산맥 아래로 지나가는 H-3 인터스테이트 터널에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맨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영상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목욕통에 함께 들어가 숨은 가족들도 있었고, 식당 테이블 밑으로 대피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관광객들은 실내에 머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이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질 법했던 것은, 20세기 초에 외국 주권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유일한 미국의 주가 하와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 당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탄도 미사일 시험을 자주 감행하던 북한의 지도자가 자신의 책상에 핵무기 발사 버튼이 있다는 발표까지 했던 터라 북한의 공격에 대한 공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이의 주민들은 그 잘 못된 비상경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히 높은 공포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평온하게 지냈었을 어느 토요일 아침에, 수십 분 동안이나 하와이와 부속 섬들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만일 그런 비상경보를 받는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 경보가 진짜 공격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와이 “주민들은 경보 발령 후에 12분밖에 대피할 시간이 없다”고 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12분 후에 다가오는 모든 것의 끝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에 온 힘을 기울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을까요? 대피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신경을 집중했을까요? 만일 내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단 12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2018년 1월 13일 하와이 주민들이 겪은 일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이 경고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종말의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베드로후서 3:10). 이 말씀은 비록 2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모든 것이 소멸되는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상경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하와이에 있었던 비상경보의 경우처럼 완전히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할 것인데(고린도전서 15:24), 그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살 하늘 나라에 있는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4:1-3; 데살로니가전서 4:15-17; 히브리서 9:27-28).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에베소서 2:8)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그 경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어둠” 속이라고 묘사된 그와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인데(마태복음 13:40, 42, 50; 18:8-9; 25:41), 그곳은 회한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를 갈며 슬피 울”이 있는 곳입니다(마태복음 8:12; 13:42, 50; 2:13; 24:51; 25:30, 41). 그러므로, 우리 각자 모두는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 경고에 더하여, 성경은 이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마태복음 24:3),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36). 그런 의미에서, 그 날이 오는 때와 관련해 신약성경은 전편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합니다(마태복음 24:42-43; 데살로니가전서 5:2; 베드로후서 3:10; 요한계시록 16:15). 도둑은 피해자들에게 언제 침입할 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의 날의 예상치 못한 때에 올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경보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말이 곧 닥칠 것처럼 높은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강조는 충성된 종의 비유(마태복음 24:45-51)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후에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44).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는 열 처녀의 비유(마태복음 25:1-13)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마태복음 25:13). 이러한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요한복음 14:2-3). 그러므로, 우리 각자 모두는 종말의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지 12분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